

일본서 '금융계 손정의'로 불리는 재일교포 2세 존 에하라 유니스캐피탈 회장

'남들 못보는' 한치 앞 내다봐야 파이어니어죠

“폐쇄적인 일본 사회에서 파이어니어(개척자) 정신 하나로 살아 남았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 그곳에 늘 기회가 존재한다.”

존 에하라 유니스캐피탈 회장(62)은 최근 매일경제신문이 주관한 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공동 개최한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I 2014)’ 참석차 방한했다.

한국 이름이 강중웅인 존 에하라 회장은 부모가 제주 출신인 재일교포 2세로 아시아인 최초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파트너에 오른 파이어니어 아시아 최초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유니스캐피탈을 창립해 2400억원(약 2조400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 금융계의 마스터’ ‘일본 금융계의 손정의’라는 호칭을 얻을 만큼 일본에서도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그는 ‘파이어니어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인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 재일교포 2세로서



핸디캡을 장점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가 골드만삭스에 입사했던 시절 일본 금융계의 최고 인기 직장은 당시 일본 최대 은행이던 미쓰비시은행이었다. 그러나 그는 장

래가 보장된 미쓰비시은행 입사가 가능했음에도 웰스트리트에 진출하는 ‘먼 길’을 택했다. 그리고 1984년 골드만삭스 일본지점을 처음으로 개설했다. 그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골드만삭스가 얼마나 대단한 투자은행인지 여전히 감을 잡

변 일본인들이 모두 만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니스캐피탈은 설립 후 16년간 20개 회사를 사들이며 일본 최대 PEF 운용사로 자리 잡았다.

PEF는 기업을 사들여 해당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린 뒤 재매각해 차익을 추구한다. 이런 PEF를 운용하는 에하라 회장의 기업 가치 끌어올리기 비법은 단순했다.

그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단 하나의 요인은 경영 노하우 업그레이드”라고 말했다. 그가 예를 든 사례는 한국에도 진출해 있는 회진초밥 체인점 스키로다. 스키로 경영진은 초반 잠깐 출신으로 요리 실력은 단연 최고였다. 그러나 요리 실력을 판매로 연결시키는 경영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에하라 회장은 “스키로”라는 브랜드를 제외한 모든 경영전략에 손질을 가했

고 경영진을 설득해 한국 시장 진출에도 나섰다.

스키로의 시장점유율은 유니스캐피탈이 인수한 2007년 업계 3위에서 매각 시점인 2012년 업계 1위로 올라섰다. 유니스캐피탈은 불과 5년 만에 100억원(약 1000억원)의 투자금을 8배인 800억원(약 8000억원)으로 불러 커다란 수익을 남겼다.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도 꿈꾸고 있다. 그는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부펀드가 얼마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에 국민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모국인 한국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유니스캐피탈은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글로벌 기관투자가 자금 비중이 80%를 넘으며 최근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자금 운용을 위탁하고 있다.

한우람 기자·사진/김재훈 기자 ▶레이더M(RaytheM.kr) 보도

매경춘추

윤고는 소설가



인베이터 그래픽은 스페이스 인베이터(Space Invader)라는 게임의 캐릭터들을 색색의 타일로 부활시킨, 일종의 타일 모자이크 작품이다. 정체를 숨겨놓은 작품이다. 정체를 숨겨놓은 작품이다. 정체를 숨겨놓은 작품이다. 정체를 숨겨놓은 작품이다.

나는 예전에 소설의 한 장르로 인베이터 그래픽을 사용한 적이 있다. 그때까지는 나도 글과 사진으로만 인베이터 그래픽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인데, 몇 년 전 파리에서 그것과 마주쳤다. 내가 파리 마레지구에 인베이터 그래픽이 몇 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이 나타났다.

는 사람들이 더 열광한다. 도로명이나 건물명이 표기된 것과는 또 다른 형식의 재미있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다. 나만 아는 비밀이기도 하지만, 소통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불고기 누군가는 알아보는 그런 방식은 이 거대한 도시에서 익명의 사람들끼리 릴레이 이야기하는 재미를 주기에 때문이다. 인베이터 그래픽이 유명인구 많은 대도시를 주로 배경으로 하는 건 수많은 군중 속에서 마주

칠 때 그것이 더 반갑기 때문이 아닐까. 내게 인베이터 그래픽이 큼직하게 그려진 스티커가 생긴 건 우연이었는데, 나도 그것을 어디가에 붙여보려고 했다. 처음에 내가 생각해낸 장소는 책상 위였다. 그러다 책상 벽면으로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아파트 외벽이 되었다. 창문을 열어서 손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 그 벽면 말이다. 타일이 아니라 스티커 형태이긴 하지만, 이제 길 건너 횡단보도 앞에 서서 이 건물을 바라보면, 뭔가 외벽에 코딱지처럼 붙어 있는 창문 이 보인다. 파란색과 녹색, 약간 빛바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 이 이야기를 알아볼 사람이 있기를.

노승환 前국회부의장 별세

'마포 터줏대감'... 1만4천여회 주례로 기네스 기록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이 24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노 전 부의장은 지난 1951년 신공덕동 민선 동회장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건국대 재학 중이던 1958년엔 초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1971년 8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구에 출마해 당선된 후 이 지역에서 5선(8·9·10·12·13대)을 지냈다. 신민당과 민주당에서 부총재를 맡았고 13대 국회인 1988년 평화민주당(평민당) 소속으로 국회부의장에 선출됐다.

1995년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마포구정장 선거에 출마했다. 국회부의장 출신이 구정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당시 큰 화제가 됐다. “나를 길러준 마포구민에게 마지막 봉사를 하려고 출마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던 노 전 부의장은 그 해 선거에서 전국 최대득표로 당선을 했다. 이어 1998년 2차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2002년까지 구정장직을 역임했다. ‘마포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노 전 부의장은 이 지역에서 무려 1만4000여 회의 결



혼식 주례를 맡아 이 부문 기네스북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다. 수십 년 동안 아낌없는 주례인심으로 현역 활동 당시에는 “주례를 선 부부와 자녀만 지지해도 당선이 확실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2005년에는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 2007년에는 헌정회 원로위원을 맡았다. 유족으로는 아들 광래(미국 거주), 응래(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현래(대한태권도협회 전무), 총래(삼성애니카 서비스 상무), 장래 씨(개인사업)와 사위 박문부(미국 거주), 권혁 씨(장르작가) 등이 있다. 차남인 노응래 의원은 고인을 이어 마포에서 17·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빈소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27일.

장영석 기자



벽화로 꾸민 세상 한양대 동문봉사단 ‘함께한대’와 재학생 중심 봉사단 ‘희망한대’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24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일대 주책마을에서 오래된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진 제공=함양대>

포스코, 세월호 성금 36억4000만원 기탁

포스코(회장 권오준·사진)는 25일 국가 안전 인프라 구축과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한 성금 36억4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성금은 포스코가 25억원, 대우인터내셔널 등 3개사가 각 1억원씩, 포스코ICT 등 4개사가 각 5000만원씩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 패밀리 임직원들도 ‘포스코1% 나눔재단’을 통해 6억4000만원을 기부해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민간미래전략위원회 자동차산업 토론회

김광두 민간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사진)은 27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27일 오전 7시에 ‘자동차산업의 미래’란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박용재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소장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올 초 공식 출범한 민간 미래전략위원회는 국내 과학기술계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총 26명의 인사가 참여한다.

“위험요인 커진 美반부패법 선제 대응을”

미국로펌 '코빙턴&벌링' 헤스터 회장...기부도 고발 가능

“미국 진출 한국 기업에 가장 큰 장벽은 이제 반부패법보다 ‘반부패법’입니다.” “결론 다 걸린다”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95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대형로펌 코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의 티모시 헤스터 회장은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헤스터 회장은 “미국 법무부와 SEC 등이 FCPA를 미국 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자주 적용하면서 과징금도 고액으로 부과하는 추세”라면서 “최근에는 통신이나 국방, 제약, 농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되는 만큼 자칫 기업 활동의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도 FCPA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FCPA는 뇌물금지 규정과 회계 관련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적용이 많이 되는 것은 뇌물금지 규정이다. 문제가 되는 활동이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송금 과정에서 미국을 경유할 경우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FCPA를 적용할 수 있다. 코빙턴앤벌링은 지난 2012년 한국에 진출했다.

자가 담긴 철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규제 위반 자처분대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CPA는 지난 1970년대 항공기 제조사인 록히드사가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일이 적발된 ‘록히드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헤스터 회장은 “미국 법무부와 SEC 등이 FCPA를 미국 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자주 적용하면서 과징금도 고액으로 부과하는 추세”라면서 “최근에는 통신이나 국방, 제약, 농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되는 만큼 자칫 기업 활동의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도 FCPA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FCPA는 뇌물금지 규정과 회계 관련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적용이 많이 되는 것은 뇌물금지 규정이다. 문제가 되는 활동이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송금 과정에서 미국을 경유할 경우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FCPA를 적용할 수 있다. 코빙턴앤벌링은 지난 2012년 한국에 진출했다.

안영원 기자·사진/박상선 기자

하쿠타 NHK 경영위원 또 망언

남태평양 두 도서국 '거지같은 가난한 연립주택'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는 등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일본 인기 작가 하쿠타 나오키 NHK 경영위원이 이번에는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을 비하하는 막말을 했다.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쿠타 위원은 24일 기쿠시에서 열린 자민당 집회 강연에서 자신을 개헌 파로 소개한 후 “군대는 집으로 비유하면 방범용 열쇠로, (군대를 보유하는 것은) 열쇠를 확실히 채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대가 없는 남태평양 도서국인 바누아투, 나우루 국명을 거론하면서 “집으로 비유하면 거지 같은 가난한 연립주택으로 도둑도 들지 않는다”며 두 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대동아전쟁이다. 공부하지 않으면 현재 국제사회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도쿄도지사 선거 지원 유세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를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하고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는 망언 등을 늘어놓아 물의를 빚었다.

유미우리신문은 이날 발언을 두고 “특정 외국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져 향후 문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12·12군사비탄 기념 이학봉 전 의원 별세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학봉 씨가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이 전 의원은 1979년 12·12군사비탄 때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수사하고 1980년 5월 보안사령부 대공적장으로 정치인과 학생들에 대한 체포 조사를 총지휘했다.

1980년 육군준장으로 예편한 뒤 1997년 4월 12·12와 5·18 사건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사면됐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이설혜 씨와 아들 이일형·세형 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27일 오전 8시 30분이다. 장지는 분당 휴추모공원이자.



도요/임상균 특파원

독자들의 기사 평가와 문의·사진을 받습니다

매일경제 기사를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메일로 문의나 평가를 해 주십시오. 담당 기자들이 친절하게 기사를 작성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찍은 사진 가운데 재미있거나 의미 있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매주 1회씩 지면에 게재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 people@mk.co.kr ▷문의 = (02)2000-2384-7